

# 한국의 호국불교 서구에 잘 알려져

## 해외불교칼럼

한국 불교의 감연한 호국호법(護國護法)의 전통은 서구사회에 더 널리 알려져 있다. 다음의 글은 미 합중국군의 <군법사승>에 게재된 '한국의 승병역사' 관련 칼럼을 인용, 보완 편역한 것이다.

한국의 승병은 신라 후기부터 한반도를 침범한 거란, 여진, 몽골 등 중앙아시아의 여러 침략자를 물리친다. 또 고려사(高麗史)의 <최영전(崔暲傳)>에는 고려 때 당 태종이 침입하자 승병 3만 명이 분전했음이 기록되어있다. 이후 고려 시대의 사찰에는 수원승도(院院僧徒)가 있었다. 일종의 국방예비군인 그들은 평상시에는 성과와 방어요새의 구축, 백성들의 긴급 재난구제와 역병치료, 식량배급 등 제중(濟衆) 활동에 종사한다. 그러나 국가비상시에는 향마군(降魔軍)이란 강력한 전투단으로 재편성된다.

한국승병이 특히 웅장스러운 저력을 발휘한 시기는 임진왜란(1592-1598) 때다. 전국시대라는 장기내전 끝에 일본을 통일한 히데요시군벌이 도발한 '왜란'은 사실상 2차에 걸친 조선 내전이다. 그들은 정명가도(正明假道), 곧 조선을 통해 명나라를 치러갈 터이니 길을 빌리자는 명분을 내세우나 조선은 이를 즉각 거절한다.

일설에 따르면, 그즈음 히데요시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중국은 물론 인도와 유럽까지 진공한다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힌다. 오래전부터 동아시아해안을 노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맞아 승병을 이끌고 구국의 일선에 나섰던 서산 대사 청허 휴정 스님의 영정.

락질한 일본의 해적, 즉 왜구에 시달려 온 조선은 이처럼 대대적인 침공을 미쳐 예상하지 못한 채 전쟁초기에는 속수무책으로 패한다. 게다가 조선의 문반 선비들은 국방을 소홀히 하고 무반을 천시한 탓에 조직적 반격의 구심점을 찾지 못한다.

왜적이 잔인무도한 대살육전을 벌이며 순식간에 북상하자 조선의 왕인 선조는 수도인 한양을 탈출한다. 그러나 평소 불만이 누적된 상당수의 무인들도 필사왕전보다는 탈주를 택한다. 그 패배적 정황에도 일부 남

은 무장 세력들이 전열을 정비하여 적의 예봉을 꺾는다. 그 중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무장집단이 승병(sungbyung)이다.

여기서 잠시 당대 조선중기사회에서 불교의 입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교가 4세기에 한반도에 들어온 이래, 정치 사회 문화 예술의 발달에 크게 공헌하고 조선의 건국에도 고승들이 참여한다. 그러나 조선 중기의 임진왜란 즈음에는 세 정 차이점으로 자리한 성리학으로 인해 산문이 폐쇄되고 승려신분이 심히 격하된다. 불교는 이렇듯 수모를 당하나 일단 외침에 당면하자 성난 별떼처럼 전국에서 일제히 봉기한다.

최초로 승병을 집결하여 참전한 승려는 기허당 영규(靈圭)이다. 그는 공주 청련암에서 불법과 무술을 수행하던 중 왜란이 터지자 의승장이 되어 갑사, 마곡사를 주근거로 승병 600명을 포함한 800명의 전투단을 지휘한다. 그는 의병장 조헌과 더불어 정주성 탈환의 패승으로 적의 교두보를 차단한다. 이어 그는 금산전투에서 아군의 퇴로를 터주는 구출작전 중 휘하 승병과 의병 700여 명과 함께 전사한다. 전혀 예기치 못한 승병의 결사항전으로 기습타격을 당한 적은 작전상 대 혼선을 빚는다.

승병 편제가 조선 전역에 걸쳐 조직된 것은 1592년 7월부터다. 평안도 의주의 행재소, 즉 피난처에서 전전공군하던 선조는 급히 묘향산에 있던 휴정(休靜)을 찾는다. 조정 중신들도 허둥지둥 승단에 손길을 내밀며 승속을 망라한 불교계 전체가 왜적을 격퇴해주길 바란다. 서산 대사와 청

허로도 알려진 휴정은 구국의 방도를 묻는 선조에게 "늙고 병들어 싸움에 나서지 못할 승려는 절을 지키며 구국을 기원하고, 나머지 모든 승려는 소승이 직접 이끌고 구국전선에 나서겠다"고 대답한다.

선조는 73세 고령의 노승 휴정에게 팔도십육종도총섭(八道十六宗都總攝), 곧 조선의 승군 총사령관의 막중한 책무를 맡긴다. 즉시 최고지휘부 격인 승통(僧統)을 설치한 휴정은 문도 1500여 명의 승병과 함께 아전지휘부인 순안의 법흥사에 주둔하며 조선 8도의 승병 간 연합조직체제와 군수보급선, 첩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한다. 또한 그는 각 승병장(僧兵將) 별로 첩보수색, 축성, 병기제작 및 군량미의 확보와 수송임무를 분담시킨 한편, 평양성의 탈환전투에 투입할 정예승병 5000여명을 별도 모집한다. 휴정은 전국 각처의 승도들에게 진중보국의 일념으로 호국호법의 최선봉에 나서도록 독전(獨戰)한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시인이기도 한 서산대사 휴정은 친히 격문을 써서 조선 팔도의 전체 사암(寺庵)에 돌린다. 그의 승병총동원 격문 (the Manifesto, Calling upon the Monks to Mobilize)은 내용 전문이 영역되어 미 합중국군의 불교 사이트인 <군법사승>에 실려 정렬한 한국 승병의 역사를 전하고 있다. (계속)

번역 : 성휴 스님  
출처 : Navy/MIL A&N  
출처 : Chaps' Dharma Talk: 'Sungbyong' - The Warrior Buddhists of Korea, Japan's Sohei, Shaolin Warriors, 기타

##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엘리스 워커 8

# 흑인문학계 부흥에 '보살행'

엘리스 워커는 흑인문학계 선배문인들의 업적을 새롭게 다고 빛내는 고결한 보살행을 펼친다. 그녀가 전기를 쓴 랭스턴 휴즈는 흑인만이 천부적으로 지닌 흑인성 또는 흑인영혼(Black Soul)을 자랑스레 여긴 문인이다. 시인, 소설가, 극작가, 칼럼니스트로서 인종차별을 주제로 한 저항시로 유명하다. 잠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한 그는 '합력의 세익스피어'라 불린다. 또한 백인문학의 도식과 한계성을 뛰어넘는 흑인문학을 전 세계에 알린 '흑인문학의 외교관'이다. 고대문명발생의 원류부터 현대 미국흑인의 애환까지 잔잔하게 노래한 그의 시 '니그로 강들에 대해 말한다(The Negro Speaks of Rivers)'를 들어보자.

엘리스 워커는 사라진 뱀뱀된 여류 흑인 작가 조라 닐 허스턴의 유고를 발굴해 출판하는 아름다운 보시를 행했다. 조라 닐 허스턴은 유랑극단생활 등 역경 끝에 고학으로 하워드대학에서 인류학과 민족사회학을 전공하며 창작활동을 시작한다. 4편의 장편소설과 36편의 단편소설, 희곡 등 역작을 내놓지만 문단은 그의 심오한 작품세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문단의 냉대, 극심한 생활고와 질병에 시달리던 그녀는 빈민복지원에서 슬픈 삶을 마친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그녀의 선구적 업적은 엘리스 워커와 흑인여성으로 최초의 1993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토니 모리슨 등으로 이어지며 미국 흑인여성 문학에 있어 독보적인 자리매김을 한다.

## 비운의 작가 조라 닐 허스턴 유고 출판

## 대학가 교양필독서로 자리매김한 '걸작'

나는 강들을 알고 있다  
이 세상만치 오래되고 사람의 핏줄 속  
의 피처럼 흐르는 그 강들을  
내 내은 그 강들처럼 깊어져 왔다

나는 이른 새벽 유프라테스 강에서 먹  
을 갠고  
콩고 강의 물결은 강나루에 음파를 친  
나에게 자랑가를 들려주었다  
나는 나일 강을 바라보며 그 위에 피  
라미드를 올렸다

에이브링컨이 뉴올리언스로 내려갈 적에  
나는 미시시피 강의 노래를 들으며  
저녁노을에 온통 황금빛으로 물드는  
보드라운 진흙 둔덕을 보았다

나는 강들을 알고 있다  
먼 옛날 으스스한 그 강들처럼  
나의 뱃도 깊어져 왔다

조라 닐 허스턴의 작품들은 1990년대부터 미국 대학가의 교양필독서로 애독된다. 엘리스 워커의 문학적 어머니라 할 그의 작품 중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는 소재와 배경에서 <컬러 퍼플>의 원형이랄 수 있다. 자신의 현재 위상에 도취하여 지난날의 고난과 역경을 망각할 때 개구리가 울쟁이 적 모른다 하느니라, 엘리스 워커 보살은 그와 대조적으로 잘 '정리된 인격체'다. '남을 생각하는 지식인'인 그는 지금도 창작활동을 하며 여성권익개선, 환경보호, 경제정의실현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또한 '스피릿루트센터'에서 대중들에게 불교의 내관관선을 지도한다. 그의 말을 빌려 이야기를 마치고자 한다.

"불교는 고요의 필요성을 늘 내게 일깨운다. 고요란 분노를 넘어선 연민이며, 미움을 모르는 자비이다." (끝)  
성휴 스님

## 불교식 아동교육 강화... 호주 데일리리스불교학교

호주 데일리리스불교학교는 불교식 아동교육을 강화하고자 8월 31일부터 초등학교부터 3학년까지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교과정(개방, 등록, 수업)을 진행한다. 불교참찬을 통한 자아인지 및 불교윤리, 예술창작, 자유토론 과정 등의 신설취지에 대해 안드레아 휘니스 교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장기 비전은

불법의 지혜와 방편을 실제 교육현장에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 학교는 불교철학이 제시하는 비구속적인 정신환경, 권위보다 관용적 탐구정신을 통해 성장기 아동들이 일상생활을 통한 자아인지와 화해의 정서를 배양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인종, 종교, 문화배경의 구분 없이 모든 대중을 환영한다." 출처: Advocate, BCN

##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 Miracle? Saved by God?

## 기적? 신이 날 구해줘?

Swept by the swollen water right after a heavy rain, an American university student camping near a valley fell into the rapids leading to the waterfalls. His friends feared for his life. But he eventually managed to survive from the bottom of the falls. His friends admired, "Such a miracle! God saved you!" He calmly smiled, "Well, I simply followed the Buddha's teaching. I adapted myself to the water and allowed myself to be shaped by it. Plunging into the swirl, I came out with the swirl. Miracle? Saved by God? Please, don't try to make sense out of nonsense! What a pity!"

계곡 가까이서 캠핑하던 한 미국학생이 폭우로 불어난 물살에 폭포로 마구 휩쓸려갔다. 친구들은 그가 죽을 거라 생각했으나 그는 폭포 바닥에서 어떻게 살아올라왔다. 친구들이 사뭇 감탄했다. "기적이야, 신이 구해준 거라고!" 그는 싱긋 웃었다. "난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한 거야. 나 자신을 그냥 물살에 맡겨버린 거지. 물살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갔다 다시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 나왔을 뿐이야. 근데 뭐, 기적? 신이 날 구해줘? 니들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좀 말아줘, 나 진짜 슬퍼져."

번역: 성휴 스님 그림: 이태수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 2008년 제 6회 영산재 국제학술 세미나

- ◆ 주 제 : 불교 예술과 영산재
- ◆ 일 시 : 2008년 9월 19일 (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 ◆ 장 소 : 서울 신촌 봉원사 범음대학 세미나실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02-392-3234
- ◆ 주 관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옥천범음대학, 봉원사
- ◆ 후 원 :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년도 문예진흥기금 불교음악 연구소, KOREANA 예술단

[등록] 9:20-9:30 [개회식] 9:20 - 9:30 개회사, 격려사

• 기조연설 : 홍윤식(동국대 명예교수, 일본학연구소소장) "불교예술과 영산재"  
▷ 영어통역 : Lee Bon

### 진행순서

- 〈오전 발표〉
- 10:00-12:00 1부 진행 사회 법현스님(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 10:00-10:30 서한범(단국대 국악과 교수) "영산희상의 음악적 가치"  
▷ 지정토론-김영운(한양대 국악과 교수)
- 10:30-11:00 윤소희(동국대 문화예술대 외래교수) "대만 불광산 수륙법회 연구"  
▷ 지정토론- 최재륜(전북대 국악과 교수)

- 11:00-11:30 심상현(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학과 교수) 전통가사의 색상과 의제에 대한 고찰 - 한국불교의 흥가사를 중심으로  
▷ 지정토론-법현스님(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 11:30-12:00 양은용(원광대 한국문화학과교수, 한국종교학회장, 원광대 대학원원장) "팔관제의 한국적 전개"  
▷ 지정토론 - 이만교수 (동국대 불교학과교수 불교문화대학원 원장)
- 12:00-13:00 점심 공양

### 〈오후 발표〉

- 13:00-18:40 진행 : 백원기(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 13:00-13:30 Max-Peter Baumann "음악, 불교 그리고 세계평화" <Music, Buddhism and World Peace>  
▷ 지정토론-장휘주(용인대 국악과교수)
- 13:30-14:00 松尾恒一(마쯔오 코이치) 日本歴史民俗博物館 准教授(일본역사민속박물관 준교수 민속종교 전공) "불교의례와 한일비교, 그 구조와 예능 - 영산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佛敎儀禮と韓日比較, その構造と芸能 - 靈山齋との比較を中心に)  
▷ 지정토론 - 지인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 14:00-14:30 태국 ducation(Mahachulalongkornrajavidyalaya University (MCU), Thailand)  
▷ 지정토론-정명스님 (경영학박사, 성전사주지, 명상수행가)
- 14:30-15:00 TSAI Tsan Huang, (홍콩중문대학교 교수 Assistant Professor,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Sacred in Profane" or "Profane in Sacred"? Ritualisation of Music and Musicalisation of Ritual in Han Chinese Buddhist Practice? The Case of Sacred Instruments Faqi  
▷ 지정토론-윤영혜(서울대)
- 15:00-15:20 휴식(다과)
- 15:20-18:00 종합토론-좌장 신대철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교수, 한국문화교류센터 소장)
- 18:00 저녁 공양

### ◆ 세미나관련 문의

- 범음대학 김혜림실장 02)392-3234
- 영산재 보존회 범음대학 학장 일운스님 011-272-5805
- 법현스님(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영산재보존회 기획, 홍보부장) 011-340-6406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